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The APO in the News”

Name of publication: MoneyToday (17 November 2014, Republic of Korea)

Page: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11709480337382>

## 韓 근로시간 "경쟁상대 홍콩·싱가포르보다 짧아"

대한상의 분석, 노동생산성 낮지만 실질 임금수준 '최고'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입력 : 2014.11.17 11:01

<표1> 아시아 경쟁국의 1인당 GDP 및 연간 근로시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1인당 GDP (13년 기준)	명목소득	25,975달러	38,468달러	20,925달러	55,182달러	37,955달러
	구매력 기준	33,791달러	36,654달러	41,539달러	78,762달러	52,984달러
연간 근로시간	PWT(11년 기준)	2,193시간	1,706시간	2,144시간	2,287시간	2,344시간
	BLS(12년 기준)	2,289시간	1,727시간	-	2,409시간	-

\* 1인당 GDP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4

\* 연간 근로시간 :

· PWT : Penn World Table ver. 8.0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와 네덜란드 University of Groningen의 Groningen Growth Development Center에서 운영하는 국민계정 국제비교 DB)

· BLS :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DP per Capita and per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긴 편에 속하지만 경쟁상대인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 등에 비해서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노동생산성은 가장 낮은 반면 실질 임금수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근로시간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단순 비교해 근로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7 일 발표한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임금·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우리보다 1 인당 국내총생산(GDP)가 훨씬 높지만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으며 일본은 더 짧았다.

먼저 아시아 경쟁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국제데이터(Penn World Table)에 따르면 홍콩이 2344 시간(2011 년 기준)으로 가장 길었고 싱가포르(2287 시간), 한국(2193 시간), 대만(2144 시간), 일본(1706 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2012 년 기준 자료에서도 싱가포르(2409 시간), 한국(2289 시간), 일본(1727 시간) 순으로 조사됐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1 인당 GDP(2013 년 기준)는 각각 5 만 5182 달러와 3 만 7955 달러로 우리나라(2 만 5975 달러)을 훨씬 앞선다. 대만의 구매력 기준

소득은 4 만 1539 달러로 한국(3 만 3791 달러)보다 높다. 아시아 주요 경쟁상대들이 더 잘 살지만 더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30 여년간 근로시간 감소추세 역시 우리나라가 아시아 경쟁국보다 가팔랐다. 한국은 1980 년~2011 년 사이 근로시간이 연평균 18.4% 감소, 일본(19.6%)에 이어 감소율 2 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 대만은 16.9% 감소했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3.6%와 0.6% 줄어드는데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근로시간을 당연히 단축해야 한다고 논의됐지만 우리나라와 경제발전 경험이나 문화가 비슷한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반드시 장시간근로 국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낮은 반면 임금수준은 가장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로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싱가포르와 홍콩이 가장 우위에 있고 이어 대만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64% 수준에 그쳤다. 시간당 노동생산성 역시 싱가포르·홍콩이 가장 앞선 가운데 일본·대만이 다음을 차지했다. 한국은 싱가포르·홍콩의 2/3 수준에 그쳤다.

반면 한국의 임금수준은 경쟁국보다 높았다. 복수의 국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일본, 싱가포르보다 낮지만 홍콩, 대만보다 높아 경쟁국 중 중간수준이었다. 그러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PPP) 임금은 홍콩, 대만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보다 높아 경쟁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